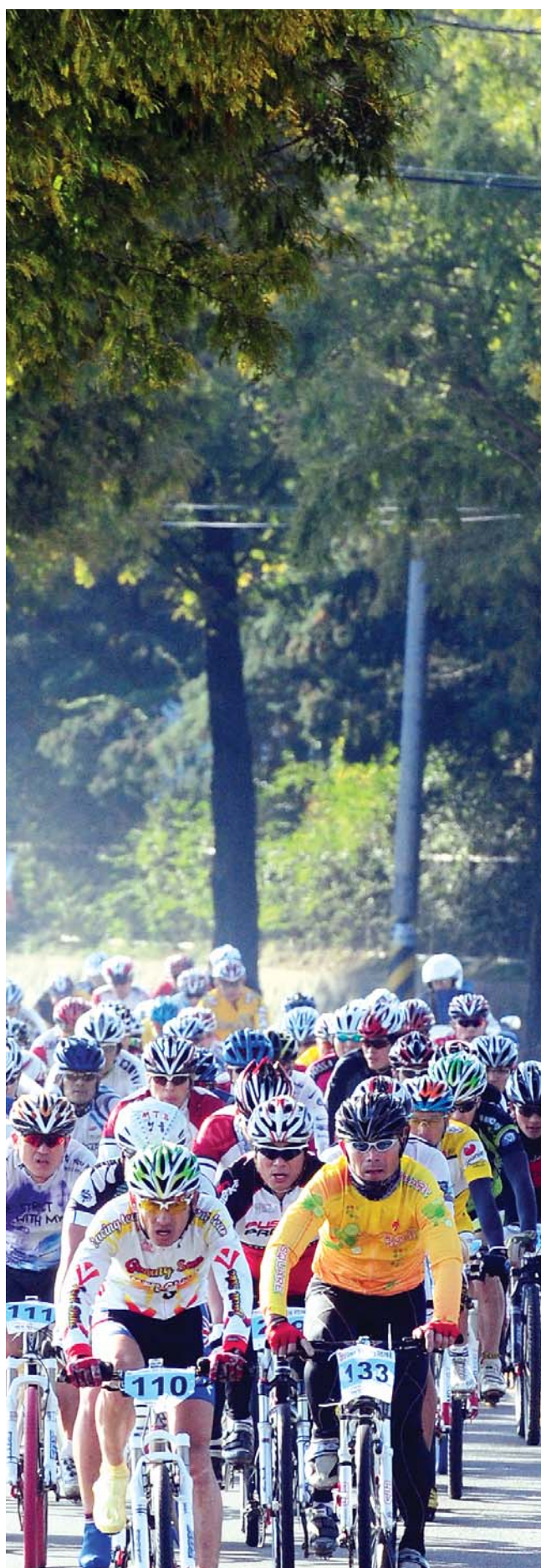


1000개 은륜 물결... 행복한 가을 질주



▲ 오르막 질주하는 두 바퀴 2010 그린 광주·전남 자전거축제에 참가한 선수들이 나무 노안 삼거리를 지나 오르막길을 달리고 있다.



▲ 가을속으로 선수들이 가을의 마지막을 알리며 노랗게 물든 나무를 지나 노안 메타세쿼이아 길을 힘차게 달리고 있다.

그린 광주·전남 자전거축제 성료... 광산 MTB 단체 우승

자전거 행렬이 남도 들녘을 은빛으로 물들었다. 2010 그린 광주·전남 자전거축제가 지난달 31일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 광주·전남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광주·전남도·광주일보가 공동주최하고 광주시 사이클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500여명의 자전거 동호인이 참가해 광주·전남·노안삼거리·장동교·호남대학교까지 이어지는 46km 로드레이스에서 열띤 경쟁을 벌였다. 광주·전남 자전거 동호인들은 물론 대전, 서울, 정읍 지역의 동호인들까지 대회에 출전해 오색으로 물든 남도의 자연 속을 달려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숨가쁘게 전개된 질주 경쟁에서 김희권

씨를 팀장으로 하는 광산 MTB(B)팀이 지난해에 이어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며 2연패의 영예를 안았다. 대전바이시클클럽, 광산 MTB(A), 씨마운틴 MTB, 레파 MTB(A)가 그 뒤를 이었다. 남자 개인전에서는 서울 도싸 마일스토리의 정성인·조양래씨가 1시간9분17초30과 1시간9분17초60의 성적으로 나란히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1·2위에 올랐다. 3위는 이경선씨가 차지했고, 4위와 5위는 정읍 MTB 김규운씨와 광산 MTB(B) 김희성씨가 기록했다. 여자 개인전에서는 정읍 MTB의 홍일점 김수진씨가 1시간17분30초의 기록으로 우승자에 이름을 올렸다. 광산 MTB(E)팀의 이미진·전희정씨가 2·3위를 차지했고, 광주 무등 MTB B팀과 A팀의 문

소영·조현남씨가 그 뒤를 따랐다. 이날 대회를 진행한 박일우(52·전 국가대표 감독) 심판장은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매끄럽게 대회가 진행됐다"며 "순위 경쟁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자전거를 통해 자기계발이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어가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대회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박주선 민주당최고위원, 윤봉근 광주시의회의장, 강계두 광주시경제부시장, 이개호 전남도행정부지사 등이 내외빈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여울기자 wool@/사진=최현배·김진수기자 choi@kwangju.co.kr



▲ 무사고 기원 레이스에 앞서 무사고를 기원하는 치평동 풍물패의 길놀이 공연이 펼쳐졌다.



▲ 마지막 점검 레이스를 앞둔 선수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 완주의 기쁨 결승선을 통과한 정읍 MTB 회원들이 완주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부문별 입상자



팀워크로 대회 2연패 '행복한 축제'

■ 단체전 광산 MTB

"남도의 가을을 회원들과 함께 달린 것만으로도 행복하며, 우승까지 해서 더 기쁩니다." 단체전 1위에 오른 광산 MTB 회원들은 결승점인 호남대에서 행복한 축제를 벌였다. 5개팀, 23명이 개인·단체전에 나눠 출전한 광산 MTB는 이번 자전거 축제에서 김희성(46) 팀장과 김희권(42)·오원용(35)·박원철(34)씨가 달린 B팀을 1위로 끝인시키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김 팀장은 "손가락 부상을 당한 선수가 있어 걱정을 했는데 제 몫을 다

해냈다"며 "혼자 하는 시합이 아닌 만큼 체력을 배분하며 선수를 개개인 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말했다. 영산강변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광산 MTB는 단체전 우승 외에도 단체전 3위, 여자 개인전 2·3위, 남자 개인전 5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다. 김 팀장은 "대회 한 달 전부터 매일 저녁 삼도동과 동산대 인근에서 맹훈련한 덕분에 참가 회원 전원이 완주하는 성과도 있었다"며 "내년에도 그립 광주·전남 자전거 축제에 보다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단짝친구와 선의 경쟁 우승 원동력

■ 남자부 정성인씨

"시원한 가을 바람 속을 '자전거 단짝'과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달렸던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든 것 같습니다." 로드레이스 남자 개인전 우승은 46km를 1시간9분17.30초에 돌파하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정성인(31·도싸 마일스토리)씨가 차지했다. 정씨는 "어제 늦게 서울에서 내려와 충분한 코스 답사를 하지 못해 걱정을 많이 했다"며 "멀리까지 응원 나와준 여자친구와 서포터즈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0.3초 차이로 결승선을 통과해 2위를 차지한 팀 동료 조양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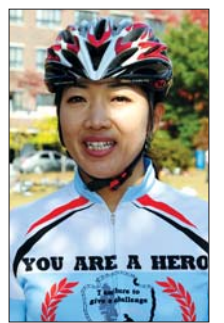


(31)씨가 우승의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초반부터 선두에 서서 교대로 바람을 맞아며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달린 덕분에 우승하게 됐다. 광주지역 대회에 처음 참가했다는 정씨는 "넓은 도로로, 안전한 경사 등 서울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환상적인 코스였다"며 "뽕이 물든 단풍길 사이로 펼쳐지는 남도의 가을 들녘을 꼭 다시 한번 달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500m 남기고 막판 스피트 한계 주효

■ 여자부 김수진씨

"끝까지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기회를 노렸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여자 개인전 우승은 정읍 MTB의 김수진(40)씨에게 돌아갔다. 김씨는 결승선을 500m 가량 앞두고 마지막 스피트에 성공하면서 1위의 영광을 안았다. 2위 이미진(광산 MTB)씨와 불과 1.15초의 차이밖에 나지 않은 박빙의 승부였다. 김씨는 "올 시즌 출전하는 대회마다 입상에는 성공했지만 1위는 처음이다. 그만큼 기분이 더 좋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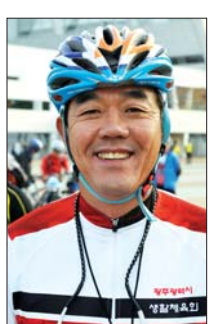


김씨는 이번 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정읍 MTB 10명의 회원 중 유일한 여성. 하지만 남성 회원들 못지 않은 열정과 자신감으로 팀의 중심 선수로 맹활약하고 있다. 김씨는 "배구 동호회 활동을 했는데 3년 전 더 스틸 넘치는 운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자전거 타기를 시작했다"며 "산과 도로를 달리며 짜릿한 라이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정상군 광주자전거연합회장

'건강의 페달' 자전거 문화위해 앞장

"사람과 차 그리고 자전거가 공존할 수 있는 자전거 문화를 위해 달리겠습니다." 광주시자전거연합회 정상군(56·건설업) 회장이 자전거 동호인들과 2010 그린 광주·전남 자전거축제에서 호흡을 맞췄다. 광주 무등 MTB 소속으로 출전한 정 회장은 1분20초41.20로 완주에 성공했다. 남자 개인전 87위지만 중년의 힘을 과시하기에는 충분한 성적이다. 정 회장은 "쟁쟁한 젊은이들과의 경쟁이 힘들기는 했지만 날씨도 최상이었고, 달리는 코스와 길도 모두 만족스러운 대회였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



'만능 스포츠인' 정 회장은 3년전 무릎 인대를 다친 뒤 의사의 권유로 자전거를 시작했다가 회장까지 맡게 됐다. 정 회장은 "자전거를 통해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사회적 역할도 할 수 있다"며 "자전거, 보행자, 운전자가 서로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자전거 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